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6일 월요일 음 12월 12일 (4물)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호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10-30mm로 예상된다.

Table with 2 columns: Direction (오전, 오후) and Precipitation (강수 확률)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 뜰때) and Temperature (해돋이, 해질, 뜰때).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호리고 비) with temperature (15/20°C, 9/10°C).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생활·안전 기상정보) and Value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월드뉴스

美 중동 병력 증파... 이란과의 긴장 급고조

군 실제 살해 따른 보복 우려

미국의 이란군 실제 폭격으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중동에 대한 병력 증파에 본격 나섰다.



중동으로 증파되는 미군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군 수백명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포트 브래그 기지에서 쿠웨이트를 향해 떠났다고 보도했다.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물기에 짐을 싣던 한 항공병은 군 "새해를 맞아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병력 수송을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해 병력 증파 결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미군 82공수부대의 대변인인 마이크 번스 중령은 이와 관련, "82공수부대 내 신속대응병력 3500명이 수일 내로 중동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번스 대변인은 "신속대응군 소속 병사들은 해외의 위기 상황에 재빨리 대응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군이 거센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공습해 살해한 후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군은 이날 위장복을 차려입은 군인들이 배낭과 소총을 메고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백록담



현영중 편집부국장

1958년 쓰촨성(四川省)을 시찰하던 마오쩌둥(毛澤東).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잡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

인민의 곡식을 빼앗아 먹는 '계급의 적'이자 '해로운 동물'이란 낙인과 함께 대대적인 박멸 운동이 시작됐다.

마오쩌둥이 참새 잡듯이 했다간...

탕'됐다. 얼치기 지식인과 행동 대원들도 가세했다. 국영 연구기관은 "참새 1마리가 매 년 곡식 2.4kg을 먹어 치운다"며 작전을 독려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수확이 늘기는 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최악의 흉년이 이어졌다.

비난이 고조되면서 참새 소탕작전은 중단됐다. 당시 소련 연해주에서 참새 20여만 마리를 긴급 공수. 마오쩌둥은 참새 소탕작전의 실패로 권력의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비극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아챈 일부 간부들이 작전 중단을 권유했다.

지역 현안을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다. 제2공항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제2공항 건설을 지역 최고 현안으로 꼽는다.

지역 현안을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다. 제2공항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제2공항 건설을 지역 최고 현안으로 꼽는다.

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측은 "현재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다.

제2공항 같은 대역사(大役事)의 효용성을 일반 민중이 판단하기엔 무리다. 현재의 상황은 물론 향후 20-30년 동안의 모든 변화가 예측·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열린마당

경자년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안전을 시작하자



강성환 제주시 안전총괄과

2015년부터 도입한 국가안전시스템을 운영하는 최근 사고발생시 및 요양병원, 불법노후건축물, 건축현장 등을 대상으로 각종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와 전열기 사용이 많아지므로 이에 따른 화재 사고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및 점검 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전원을 확실히 끄는 기본 안전

2020년 영농교육은 감귤 질적 성장에 역점



신양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

2019년산 노지감귤은 소비 부진과 경쟁과일의 증가 영향으로 가격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품질이 좋은 감귤은 5kg 한 상자에 3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경매되고 있어 품질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16과 정 2830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1월에 총 30개 마을과 5개 지역농협에서 1870명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술과 지난 해 3차례의 태풍과 긴 가을장마가 감귤품질 및 병해충 발생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기술적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둘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팜 시설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농가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교육을 전국에서 처음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과정

에 포함했다. 셋째, 안전한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시행 2년차인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교육과 감귤원지정비사업 등 농정에서 추진하는 고품질 생산시책을 집중 홍보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교육 참가 농업인에게 제주감귤박람회 품평회에서 수상한 '우수 감귤 재배농가 사례집'과 감귤요리를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감귤 이야기(Citus&FoodRecipe)' 책자, 농약안전사용 및 병해충 예방에 관한 보조구(補助具)를 나눠 준다.

지금 우리 농업은 감귤값 하락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틈을 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여해 농가 스스로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애로기술을 풀어가

Large advertisement for Novita toilets featuring various models (BD-N443, BD-AFE50N, BD-AE91) and a promotion for a soccer player (박지성) with a 500,000 won prize.